

일곱 교회의 교훈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모이를 폐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입니다.’

1. 일곱 교회의 영적 의미

일곱 교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가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계 1:19-20)

성경에 나오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므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총칭합니다. 단지 초대교회 이후 소아시아에 세워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상태를 점검하고,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주시는 뜻대와 같은 말씀이요,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교훈하시는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핵심지표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일곱 교회의 특징

1)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계 2:1-7)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던 수고와 인내, 악한 사람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이들을 시험하여 거짓됨을 드러낸 것과,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계 2:2-3).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진리를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었으므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초창기에는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부흥하면서 교만해짐으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 (계 2:8-11)

폴리감의 순교를 비롯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던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도 책망도 아닌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 적당주의 신앙을 따르며 이단 사상에 젖은 ‘버가모 교회’ (계 2:12-17)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은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부패는 외적인 핍박보다 더 위험하므로 자신의 유익을 좇아 타협한 발람이나, 육체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은 순결하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한 니골라 당과 같은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과 이단 사상에 몰들어 버린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4)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과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 (계 2:18-29)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형식주의 신앙에 치우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지여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